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를 반대한다

任 寅 宰

(서울大 教育學科)

1. 序 論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大學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먼저 오늘날의 이러한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歷史的 背景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妥當한 評價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과거의 연구 결과를 考察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授業評價는 결론적으로 教育的인 見地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代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의 背景

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대하기를 임금이나 부모를 대하듯 하라는 儒敎의 傳統的 思想

이나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는 우리 固有의 스승에 대한 尊敬心을 강조하는 말 등은 스승을 權威的인 존재로서 무조건 盲從하라는 봉건적·군주적 사회로부터의 歷史的 產物인가, 아니면 先人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스승을 이러한 태도로 대할 때에 教育的으로 더 意義 있는 學習 結果를 가져 온다는 현명한 經驗의 產物인가?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는 西歐的인 產物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5·16을 계기로 大學生들의 社會的·政治的 參與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힘의 과시는 이제 大學內의 모든 大學 行政에 참여를 주장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教授의 新規任用에 대한 학생의 참여와 학생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까지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西歐에서 교육받은 일부 교수는 이러한 학생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

다.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는 미국의 경우 學生運動이 활발하여지기 시작했던 1950년대와 '60년대경에 大學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起源을 따진다면 오늘날의 大學 형태의 始祖라고 할 수 있는 11세기의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大學까지 그 精神的 起源을 찾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中世時代에는 敎會가 주로 教育的 機能을 맡아 왔으나 이러한 종교적·봉건주의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市民精神에 바탕을 두어 여러 가지 형태의 길드(guild) 조직, 즉 協同組合이 유행하였는데, 볼로냐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 協동조합을 형성하여 오늘날의 大學 形態를 이룩한 것으로 그 실제의 명칭을 University of Students라고 부른 것을 보아도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물론 教授의 協同組合도 이

루어졌지만, 최초의 大學인 볼로냐대학에서는 學生의 세력이 강하여 教授의 招請에 대한 學生의 權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學生들의 自治의 精神과 學問의 自由의 精神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 社會政治의 및 經濟問題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學生運動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社會政治的 問題에 대한 學生의 저항과 개혁을 위한 學生運動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학생운동이 學校의 內部問題로 확산되어 學校行政에 대한 學生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고, 나아가 教授의 授業에 대한 비평과 그 評價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한 教授가 大學에서의 自身의 機能과 役割을 어떻게 보느냐, 즉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위한 연구이나 또는 學生의 教育이나 하는 것과 또한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教授는 단순한 專門的인 知識의 傳達者이나 또는 學生의 人格 形成을 위한 人間教育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大學에서의 한 教授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60년대에 들어와 教授가 研究와 著作物의 出版에만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등한히 하며 人間的인 教育보다는 단순한 전문적 지식의 전달자라는 학생의 비평의 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教授의 授業에 대한 學生들

의 이러한 批評과 아울러 學校行政에 대한 비평과 참여의 관심을 보이자, 學校行政家들은 이러한 學生의 學校行政에의 참여와 비평 세력들을 우회시키면서 教授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즉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는 學校行政에 대한 學生의 강력한 集團的 勢力과 批評, 學校當局에 대한 학생의 비평의 화살을 피하면서 教授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인과 함께 일부 교수의 講義에 대한 不實 등은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라는 奇法(?)을 大學制度 속에 도입하게 한 主要 原因이 되었던 것이다.

學生과 學校當局 및 教授集團間的 이러한 미묘한 관계 속에서 學生에 의한 수업 평가는 '50년대에 그 싹이 터서 '70년대에 들어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상당 수의 대학들이 그 실천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大學街 書店에서 각 教科의 評價資料가 책으로 출간되어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教授들은 教授의 自律性 및 教授權의 侵蝕이라는 주장과 아울러 教科와 教室授業의 여러 복잡한 측면과 그 효과에 관한 것을 학생이 타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制度에 대하여 個人的으로 또는 集團的으로 教授의 反對가 일어나게 되자, 學

生에 의한 수업 평가가 정말로 믿을 만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그 실천에 있어서도 모든 教科에 획일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또한 다른 教授와의 비교를 위한 點數分布의 規準資料를 제시하는 學校가 있는가 하면, 담당 교수의 승인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실시하여 준다든가 또는 담당 교수가 타당한 질문이라고 인정되는 問項만을 골라 해당 교과의 수업을 평가하여 해당 교수에게만 알려주는 방식 등을 적용하는 학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의 형태를 낳기도 하였다.

흔히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의 근거와 그 실천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學生의 授業評價 結果를 해당 교수에게 알려 줄 때에 수업 개선의 기회를 주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업 평가 결과를 教授의 永久的 任用과 昇進 및 俸級에 고려함으로써 教授評價의 한 資料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學生들에게 教科 評價資料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줌으로써 현명한 教科 選擇을 위한 학생들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또한 타당한가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학생의 수업 평가의 세 가지 이유가 얼마나 근거 있는 주장이 되며 또한 이에 대한 다른 代案은 없

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의 妥當性

教授의 授業을 評價하고자 하는 질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그것이 測定하고자 하는 教授의 授業의 側面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大學에서 사용되는 學生用 授業評價 質問紙에 대한 統計的인 要因分析 結果에 의하면 授業은 多面的 側面을 갖고 있는 複雜한 現象의 하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수업의 이러한 다면적 측면은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서로 다른 일관성 없는 연구 결과를 낳게 하는 主要原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즉 무엇이 바람직한 授業의 基準 또는 側面이 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이 基準이 多面的이며 애매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의 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서로 獨特하여 다를 때에 이러한 여러 측면에 관한 點數를 증합하여 하나의 總點이나 平均點數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다.

우선 教授의 授業에 대한 學生의 評價(또는 評定)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學生 評定의 信賴度의 문제를 살펴 보자.

한 講義에 대한 學期末의 學生의 評價結果와 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수 년 후에 동일

한 學生의 評價 結果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한 주어진 講義에 대한 學生들 간의 평정 간에도 學生수가 20명 이상일 때에는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同一한 教授가 두개 이상의 同一한 講座를 받는 경우, 同一한 教授가 다른 講座를 맡은 경우 및 다른 教授가 同一한 講座를 맡은 경우로 나누어 相互比較分析한 결과를 통하여 學生의 評定은 한 教授가 어떤 講座를 맡느냐 하는 教科目的 差異보다는 어떤 教授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 教授가 가르치는 여러 다른 教科間의 評定結果를 종합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 教授의 授業에 대한 學生들의 評價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學生의 授業評定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判斷基準으로서 一般的 또는 絕對的 基準이 없으므로 學生評價의 妥當度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흔히 妥當度의 判斷의 基準으로서 學生들의 學業成績 또는 教授 自身の 評價結果와의 一致度 및 다른 同僚 教授와 學生 評價結果와의 一致度 등에 대한 相關關係의 分析을 통하여 學生의 授業評價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연구하고 있다.

우선 學生評價의 타당도를 따

지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學生들의 한 講座內에서의 평균 성적과 그 講座에 대한 學生의 評定의 平均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한 教科가 여러 개의 同一한 講座로 나누어진 경우 주어진 講座에서 높은 評定을 한 學生들은 평균적으로 주어진 강좌에서 높은 學業成就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엄격한 조건하에서 비교·연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 教科가 여러 개의 教室授業(multisection course)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것이 각각 다른 教授에 의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가르쳐지며 또 學生들의 능력이 각 講座마다 어느 정도 同一하다고 인정될 때를 조건으로 한 研究結果는 일반적으로 보다 좋은 수업 평가를 하고 있는 講座에 등록한 學生들이 어느 정도 보다 높은 성적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妥當度 研究의 또 하나의 基準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講座에 대한 教授 自身の 평가 결과와 學生 평가 결과와의 一致도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대체로 낮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學生評價의 타당도를 따지는 또 하나의 基準으로서 同僚教授나 行政補職教授가 수업을 직접 참관하여 수업을 평가한 결과와 學生의 평가 결과와의 一致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同僚教授와 行政補職教授 쪽에는 어느 정도의 一致를 보이지만, 學生의 평정 결과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 教授의 수업에 대한 學生들의 評價는 상당한 一貫性과 安定性이 있어서 그 信賴性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어진 수업에 대한 學生의 評價가 얼마나 妥當한가에 대해서는 그 妥當性을 판단하는 基準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Dr. Fox는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에 관한 그의 實驗 研究를 통하여 學生들의 授業 評價는 授業의 內容보다는 講師가 얼마나 말을 잘하며 쇼우맨십(showmanship)을 잘 발휘하는가의 講師의 表現性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4.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를 반대하는 理由와 그 代案

學生에 의한 수업 평가 결과를 해당 교수에게 알려 준다면 자신의 수업 방법 등에 관해서 教授 自身이 再考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合理性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學生으로부터 좋은 評價를 받은 교수는 주위로부터 社會的 認定을 받음으로써 더욱 수업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그럴듯한 合理性을 갖고 있다. 그러나 Marsh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이러한 견지에서 종합하고 또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學生의 授業 評價가 教授의 授業 改善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다는 확고한 경험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學生들의 수업 평가는 自身의 授業 改善에 도움을 주었다고 스스로 應答한 教授들의 授業에서조차도 學生에 의한 다음 단계의 評價에서 수업 개선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美國 大學의 일부 교수들은 授業 評價에 사용되는 質問이 자질구레하고 무의미한 내용 또는 막연한 추상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어진 講義가 자신에게 意義가 있는나”라는 질문은 일부 학생들은 아직 생각도 해보지 않은 막연한 질문으로서 학생의 應答만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 教科 講義에서 별로 얻은 바 없다”라는 질문은 막연할 뿐만 아니라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주로 여기에 應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授業의 講師는 친절하다” 또는 “좋은 講師이다”라는 질문에서 얻는 결과가 수업 개선에 어떤 意義를 줄 수 있으며 “너무 과제가 많다”라는 질문에 높은 應答률을 얻었을 때, 이것이 講師에 대한 칭찬이나 또는 불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授業 評價 質問 內容의 無意味함을 지적하며 授業 評價가 자신의 授業 改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 한편 일부의 教授들은 어느 정도 授業 評價를 받아 들여

서 授業의 內容, 授業過程 및 授業方法 등에 대한 評價는 일반적으로 환영하지만, 試驗의 公正性이나 그 質의 評價 또는 教科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課題 등에 관한 質問이나 評價는 學生이 判斷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學校 行政 當局者는 教授의 빈번한 휴강, 低質의 試驗, 부당한 과제 및 불명료한 강의 등에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또는 教授의 永久的 任用法 승진 등의 평가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에 의한 評價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大學에서는 教授의 永久的 任用 決定이나 昇進 결정에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로 研究業績 評價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가 大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어떠한 力動的 關係와 風土 속에서 생겨났으며, 또한 이것이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타당하며, 教授의 授業 改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考察을 통하여 結論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學生에 의한 授業 評價는 學生勢力의 增大와 더불어 學校 行政當局이 자신에게 향한 비평의 화살을 돌리면서 教授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學校의 改善發展에 대한 學父母의 압력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存在의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經驗的인 研究 結

果를 종합해 볼 때 授業評價 結果의 妥當性이나 이것이 授業 改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는 教育的으로 根本的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學習理論이나 強化理論의 研究 結果에 비추어 볼 때, 強化者나 가르치는 者가 威勢나 權威가 있다고 인정될 때 學習者는 가르치는 者의 全體 行動을 模倣 하려고 하며 학습의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學生이 教授를 評價하고 제자가 스승을 공공연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者의 威勢나 權威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東洋의 先人들이 君師父一體를 주장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무조건 스승의 권위를 증시한 것은 教育的으로 현명한 處分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학생에 의한 授業評價 結果가 教授의 永久 任用이나 昇進에 사용되는 경우, 일부 教授들이 學生의 높은 評點을 받기 위하여 소신껏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학생의 눈치를 보고 학생에게 아부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教授의 權威가 땅에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가 획일적이 아니고 해당 교수의 승인이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업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低質의 講義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가 實施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독 안에 든 쥐를 잡기 위해서 돌로 독을 깨는 경우가 된다.

教授의 授業의 改善 發展을 위해서는 學生 理解의 方法, 教授-學習理論 등에 관한 自體 研修나 실제의 수업 관찰 등 教授 發展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博士課程의 學生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大學院에는 大學教授法(college teaching)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學生에 의한 授業評價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한 걸음 나아가 百害無益하다는 주장을 하여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學生에 의한 教授의 授業評價라는 畸形兒가 이 땅에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